

항생제와 경피적 배액술로 성공적으로 치료된 기종성 신우신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방기태, 박영아, 박영선, 조종태, 윤성철

서 론: 기종성 신우신염은 신장 실질조직, 집합계 및 주변조직에 공기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드물지만 치명적인 신장의 감염질환이다. 대개 당뇨병 환자에게 발생하며 흔히 갑작스러운 의식장애, 폐혈성쇼크, 혈소판감소증, 급성신부전의 양상으로 발현한다. 치명적이고 전격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는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즉각적인 신장절제술이 생존률을 연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고려되었으나 최근에 경피적 배액술이 신장과 생명을 모두 구하는 수술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증 례: 65세 여자 환자로 15년전에 당뇨병과 고혈압을 진단받고 경구 혈당강하제와 혈압강하제를 복용해 왔었고 내원 5일전부터 발생한 발열과 오한, 전신무력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활력 징후는 혈압 90/50mmHg, 호흡수 22회/분, 맥박수 111회/분, 체온 37.6℃ 측정되었고 이학적 검사상 의식상태는 명료했으며 누척추각 압통은 없었다. 혈액검사상 백혈구 $14,200/\text{mm}^3$, 혈색소 9g/dL, 혈소판 $69,000/\text{mm}^3$ 이었고 BUN/Cr치는 41/1.57mg/dL이었다. 뇨검사상 세균이 관찰되었고 nitrite test는 양성반응을 보였다. 내원즉시 Cefotaxime, Amikacin, Metronidazole을 사용했으며 Dopamine도 사용하였다. 내원 1일째 혈액검사상 백혈구 $29,210/\text{mm}^3$, 혈색소 11.8g/dL, 혈소판 $20,000/\text{mm}^3$ 이었다. 내원 2일째 지남력이 상실되고 의식상태가 쉽게 흥분되고 과민해지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CT 촬영 결과 양쪽 신장에 약간의 비대가 보였으며 우측 신장 집합계에 공기방울이 다수 산재되어 있었다. 뇨배양 검사상 E. coli가 자랐으며 혈액배양검사에선 균이 자라지 않았다. 내원 3일째 경피적 배액관을 우측 신장 집합계에 삽입하였고 삽입하자마자 피와 섞인 고름이 배액되었다. 항생제와 대증적 치료를 지속하였고 내원 5일째에 의식상태는 명료해졌으며 지남력이 다시 회복되었고 활력 징후도 호전되었다. 내원 6일째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동하였고 내원 16일째 퇴원하여 경구 항생제로 6주 더 치료하였다.

결 론: 연자들은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후 완치된 기종성 신우신염 환자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